

한국당, 北김영철 방남에 文정부와 체제전쟁 선포

“살인마 전범에 그들만 아는 셋문 열어줘” 비판



25일 오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열린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한 저지 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5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로를 통해 방남하자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및 당원 등은 이날 오전부터 북한 대표단의 이동 경로로 예상된 통일대교 남단 도로를 막고 김 부장 일행의 방남을 반대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충돌을 우려한 정부 당국이 김 부장 일행을 농성 중이던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가 아닌 우회 경로를 통해 이동시키자 한국당은 통일대교 점거를 풀고 해산한 뒤 정계 광장 농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 홍 대표는 “김영철이 ‘개구멍’으로 들어온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아직 견재하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김영철을 초호화 호렐로 모셔준다 하더라도 김 부위원장의 만

행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반드시 철폐가 이뤄질 것”이라며 “김영철이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한 저희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대한민국 국민은 받아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대교 농성이 끝난 뒤 장재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살인마 전범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밟았다. 죽을힘을 다했지만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막지 못했다”면서 “저희가 통일대교를 안벽 봉쇄하니, 문재인 정권은 끝내 대한민국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살인마 전범 김영철에게 그들만이 아는 셋문을 열어 주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것은 분명한 권력 남용이고, 국정 농단이고, 반역 행위다. 청와대는 종북 주사파 참모들이 국정을 농단하며 반대한국적 이적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폭침으로 순직한 수많은 국군장병들의 부모와 형제가 반대하는 김영철의 방한을 도대체 왜 그토록 고집하는 것인가. 국민의 말은 안 들어도 북한의 말은 왜 이토록 맹종하는 것인가”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 노선에 전도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과의 체제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26일 정계광장에서 김영철 방한 규탄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뉴시스

국민참여개헌 첫 시작 ‘국민헌법콘서트’ 광주서 성료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과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국민참여개헌 프로젝트 2018 우.주.부어(우리가 주권자다!)’의 ‘2018 국민헌법콘서트’가 25일 오후 1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범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총출동 김민석 원장 “국민헌법콘서트, 국민참여개헌의 밑거름이 될 것”

‘2018 국민헌법콘서트’는 국회에 국한해 진행된 개헌논의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참여개헌의 장을 열기 위한 토론회이다. 25일 부산 행사에서는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의 진행으로 박범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개헌의 주요 의제를 다뤘다.

이번 콘서트에는 이형석 광주광역시의회, 박범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윤정현 광주광역시, 강기정 전 국회의원, 이병훈 전 동남을 지역위원장, 박인화 전 광산을 지역위원장, 임우진 서구청장,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2018 우.주.부어는 “우리가 주권자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의 개헌 참여 보장을 독려하는 프로젝트며, 민주연구원 주관으로 ‘우.주.부어 가이드’인 박범계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이인영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정

순수 국회의원,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고성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장이 참여하여 전국 6개 지역(대전, 부산, 광주, 춘천, 안산, 서울)을 순회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콘서트는 국민들과의 폭넓은 소통을 통해 ‘국민 참여는 개헌의 표준’임을 알리고, 개헌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며, “국민들

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국민참여개헌 결과를 도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018 국민헌법콘서트’는 전국을 다니며 국민들과 만날 계획이며, 춘천(3월 2일), 안산(3월 3일), 서울(3월 4일)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이 행사는 시사타파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서은홍 기자

이낙연, 군산 방문해 “뭔가 돕고 싶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전북 군산 소룡동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해 ‘군산지역 지원대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를 비롯해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전북도와 군산시, 유관기관(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상공회의소, 군산산단경영자협의회), 한국지엠(GM) 군산지회 노조, 지역협력사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가 열리는 기술원 입구에는 시민과 사회단체 등이 “총리의 방문을 환영한다. 지엠 폐쇄가 웬말이냐. 지엠 폐쇄하면 시민 다 죽는다”는 등의 피켓을 들고 간담회를 전했다.

이 총리는 “(자신이)총리가 된 후 4번째 군산을 방문했다. 2번은 새민금을 찾았고 2번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과 지엠 군산공장 폐쇄 소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 시민들의 아픔은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것을 안다”면서 “지역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지엠과 대화를 이어 가고 있다”면서 “전북 도민들의 바람은 군산 공장 가동이라는 것을 안다. 성의를 갖고 대처하겠다”고 말해 군산공장 정상화는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더불어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데 무엇보다 도움이 되고자 왔으니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도는 지엠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방지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 경제에 관심과 지원을 다 하려는 대통령과 총리께 감사표현한다. 조선소 재가동과 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로 도민께 희망을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총리와 도지사의 인사말을 끝으로 비공개회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 “이승훈, 대한민국의 빙상 위대한 역사”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평창동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매스 스타트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에게 “대한민국 빙상의 위대한 역사를 썼다”며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정말 대단하다. 왜 말했는지 보여준다. 막판 폭발적인 역주에 온 국민이 열광했다”면서 “이날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재원 선수도 믿을 역할을 잘해냈다. 이어 김보름 선수에게 “잘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잘 일어났다. 정하늘과 ‘메달보다 값진 교훈을 함께 얻었을 김 선수에게 올림픽이 남다른 의미로 남기를 바란다.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남녀 선수가 함께 값진 결실을 거두게 되어 더욱 기쁘다”며 “모두들 수고 많았다. 고맙다”고 말했다.

뉴시스

옛 통진당 출신 배진하 기초의원, 민주당 입당

“변화된 정당서 생활정치”

옛 통합진보당 출신의 광주 남구의회 배진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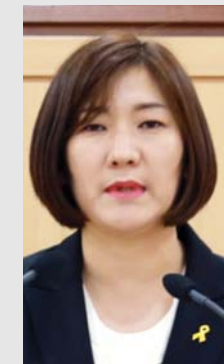
배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냈던 8년의 경험을 민주당에서 실현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민주당은 서민의 삶을 깊이 고민하고 큰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다”며 “변화된 정당에서 생활정치의 길을 걸겠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근혜 정권의 탄압 속에서 무소속으로 지냈던 3년 동안 정당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앞으로는 민주당의 당원으로 성장하고 제 몫을 내 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동감 있는 정당, 지역을 책임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정당, 시민과 함께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는 정당의 당원으로 서 몫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1997년 광주대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운동을 하던 중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옛 민주당 노동당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통합진보당 후보로 당선된 뒤 광주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장, 무장애남구 공동대표, 공익재정연구소 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